

“믿음의 길 끝에서 남긴 말”

- ▶ A. 구역공과 ◀

- ▶ B. 공동체 성경읽기 ◀

QR	
----	---

화	
---	---

수요일(사 28~30장) 예루살렘이 당할 위기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산헤림을 사용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한 앗수르 군대의 패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외식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뒤에 따를 선민의 영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목요일(사31~35장) 하나님이 구속사의 최종 완성으로서 택한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래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종말론적 축복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풍요와 평화, 자유의 만끽, 영원한 희락 등으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죄의 오염에 찌든 세상에서 갇은 질고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과 진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사 36~38장)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

합니다. 회복될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고 선언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과 대조되는 시온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선민에 대한 그의 확실한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창조자로서의 유일성과 역사에 대한 초월성,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권능의 여호와를 전적으로 앙망하라는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토요일(사 39~42장) 강대국 앗수르를 더 의지하려 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아람과 북이



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를 책망하고, 그들이 의지한 앗수르를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대가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언을 구하는 일을 경계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주일(사 43~4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 합심기도 :

1. 오해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주소서
2.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3.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235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